

대행 스님

나고 드는 조작이 모두 나로부터임을 안다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에, 항상 한자리를 하면서도 또 한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우주의 섭리와 더불어 우리 생활이 같이 돌아가면서도 너 나가 있듯이, 너 나가 있으면서도 한자리 하고, 한자리를 하면서도 한자리가 아니고 한자리가 아니면서도 한자리를 할 수 있는 깊은 뜻, 그 깊은 뜻에 의해서 우리는 움죽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는 것은 말로 그냥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법이 돼서 여러분한테 이익이 가고 여러분 생활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보고 어떠한 이론이나 가지고 생활에 지침이 없게 한다면, 내 행동에 지침이 없고 내 몸에 지침이 없고 내 가정에 어떠한 보람이 없다면, 삶의 뜻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위로나 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또는 잠시 잠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기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땀을 흘려 가면서 단돈 얼마라도 벌어서 살 양으로 쫓기고 쫓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도 딱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는 반면에 여러분이 헛된 꿈을 꾸고 헛된 말을 듣고 헛되게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마는 또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세는 여러 가지가지가 있습니다. 허나 제가 길을 인도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포함돼서 한데 공존하고 있는 그 자체를 일심(一心)으로 둔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광력이나 자력이나 전력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수화풍에 의해서 그대로 거기 바탕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오신통이 항상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책정하는 마음에, 즉 누진통에 그대로 근본적인 구슬이 그냥 굴러가고 있고 회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는 반면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산란하게 두는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잠재의식 카세트에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잠겨 있던 그것이 솔솔 각본대로 풀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아이구, 무슨 팔자가 이래서, 무슨 운명이 이래서 이렇게 다가오는가.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이러지마는 가혹하다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정해 놓은 겁니다. 정해 놓은 거를 그대로, 한 것만치 거기서 각본대로 나온다고 제가 항상 말을 했죠. 거기다가 되놓으면 그 테이프에 앞서 녹음된 거는 없어진다고요. 여러분한테 방편을 준다 하더라도 진실되게 방편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방편이자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놓는 데에 어떠한 망상과 어떠한 문제, 공부가 잘되는지 못되는지를 가늠을 못 하고 있노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들여놓고 내놓고 하는 그 자체가 들여놓는 데도 한 치의 틈이 나질 않고 내놓는 데도 한 치의 틈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거기서 나고 거기서 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생각을 했든지, 어떠한 행을 했든지, 어떠한 말을 했든지 자기가 중심을 잡아서 잘해 나가야만이 된다는 뜻입니다.

중심을 잡아서 잘해 갈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말이나 돼지 같은 것은 세 가지의, 즉 사람이 지각이나 청각이나 감각 등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충분히 가졌다면 말이나 돼지나 소들은 세 가지 종류밖에 안 가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그 소를 보는 순간에 소는 바로 내 마음에 의해서 같이 둘이 아닐 때에 비로소 인간의 충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고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소는 내 살이 되고, 바로 그 소의 마음은 내 마음이 되고, 그 생명은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요리가 돼서, 즉 말하자면 무명만 쳤을 뿐 소를 살린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모든 것에 걸리지 말고 하되,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깐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이 해 나가는 모든 각도가 그르고 좋고 나쁘고 해롭고 한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잘 처리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논을 보러 나갔습니다.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참 마음은 착했지마는 그 도리를, 물론 그 도리를 몰랐던 것은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깐 논두렁 풀 속에 큰 구렁이가 얼기설기 있으면서 자식을 낳아 가지고선 온통 한 무더기가 있더랍니다. 그거를 그냥그냥 두고 가도 좋으련만 그걸 왜 삽자루로 그냥 붕덩붕덩 끊어 버리고 갔겠습니까.

그것이 한 가정을 다 파괴를 시켜 버린 거나 똑같은 얘깁니다. 작고 클 뿐이지 또 모습이 다를 뿐이지 마음이야 어찌 사람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인연줄에 의해서 병신 손주들을 다섯이나 낳았습니다. 작은아들이 낳아도 병신이 되고 큰아들이 낳아도 병신이 되고, 이거는 자식들이 온전하게 되질 않아.

내가 만나는 여러분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이, 비밀로 놔두지마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 가정에 하나만 됐어도 좀 덜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셋씩이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피 토하고 죽을 일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죽일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볼 때에 벌써 '그것은 어떤 점에서 7대째 내려오는구나' 하는 거를 알면서도 말을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여러분한테 그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쇼크가 되고 또 그게 잠재의식에 감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서 지워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업덩어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과거로부터 쫓아 나온 건데, 과거의 인연줄로 인해서 쫓아 나온 건데, 쫓아 나온 그 자체를 우리가 다시금 거기다 놓는다면 그것이 묵살되지 않느냐고 몇 번이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반야심경에 있듯이,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어찌 둘이겠느냐.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니 어떠한 문제든지 마음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다 되놔라.' 이런 뜻입니다. 둘이 아니다. 몸이 일할 때는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닌 것이요, 또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부(父)와 자(子)는 어디 있는가? 불(佛)과 법(法)이 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만 되는가. 부는 부처라고 한다면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와 자가, 생각

☞ 2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